과거사위 "윤중천 접대 검찰간부 더 있다"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원주 별장 관련 성접대 진상 등 수사 촉구

추가 동영상 가능성 제기… 부실수사 지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 고위간부 등 법조 관계자들과 교류·접대를 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된다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미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와 함께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윤씨의 강원 원주 별장을 둘러싼 법조 관계자들 관련 의혹에 관해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 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의 조사결과 윤씨는 김 전 차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검찰 고위간부들과 어울리는 등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이는 당시 윤씨의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압수된 명함, 관련자들 진술 등으로 확인되지만 검경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와 건설업자 간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전형이라고도 꼬집었다.

그에 따라 과거사위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윤씨와의 유착 의심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 진상을 파악해 이를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특히 윤씨와 교류를 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윤씨의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어 수뢰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관련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을 지목했다.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윤씨의 '한방천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그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과거 김 전 차관 관련 1차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최종 결재자였고, 2차 수사 때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장은 변호사 개업 이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말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과거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관해 수사를 권고했다. 그 직후 수사단이 출범해 현재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또 김 전 차관 의혹이 불거지게 된 소위 '별장 동영상' 외에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씨가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과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의심 정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씨의 상습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로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여부 내지 무고 의혹도 충분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관련 과거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기 수사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경찰의 송치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원점에서 수사해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국한해 수사하고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윤씨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했고 이는 검찰이 제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사건처리의 결재제도 전면 점검 및 사후통제 방안 등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 등도 권고했다.

/뉴시스

내달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전주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불법재배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전주완산·덕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을지태극연습 기관장 주재 메시지 토의

전주시는 29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군부대·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장과 전쟁으로 인해 재난을 입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전재민 수용시설 피해발생을 가정한 기관장 주재토의를 실시했다.

이날 주재토의는 2019년 을지태극연습의 일환으로 오전 8시 전재민 1200명을 수용 중이던 전주시도시혁신센터 본관의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을 가정해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화재로 인해 사망 6명과 중상 15명, 경상 30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본관과 1500명 분의 구호용 물자가 사용 불가능해진 상황이 연습상황으로 주어졌다.

이에 기관장들은 △전재민 수용시설 이동배치 사상자 처리대책 및 전재민 구호자자 확보대책 강구(전주시) △수용시설 화재에 따른 신속 출동, 초동 화재 진압 대책과 인명구조를 위한 대책 강구 및 협조(소방서) △수용시설 방호 및 전재민 이동 수용 시 안전 이동통로 확보 대책 강구 및 협조(전주대대 및 경찰서) 등을 조치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혁신도시 합동채용 설명회 2019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가 29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내가 구직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온두레공동체 키움 5년… 협동조합 설립 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톡톡'… 전주시, 올해에만 2개 예비마을기업 선정·7개 협동조합 설립

전주시 온두레공동체들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예비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형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 시행 5년차를 맞아 그간 발굴한 2개 공동체가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고, 7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하면서 결실을 맺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관련 국 단위 행정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해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써온 결과물이다.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은 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전주형 마을 공동체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300여개의 온두레 공동체가 육성돼 전주시 곳곳에서 공동체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과 2017년 온두레공동체로 선정돼 3개년 동안 활동해온 행복나눔보물상자(대표 허정)와 노송천사마을(대표 이동규)는 최근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2개 공동체는 이번 예비마을기업 선정 과정에서도 그 성과와 가능성을 인정받아 '올해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됐으며, 향후 마을기업 설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상품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받게 됐다.

또한 온두레공동체 사업을 통해 설립된 7개 공동체는 협동조합으로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동에 크게 기여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으로 활동영역을 넓힌 공동체는 △퀼트 제품을 제작하는 '아바퀼트' △전주푸드에서 직매장을 운영중인 '전주동네빵집' △김부각이나 한과 같은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서동푸드' 등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관내 전주금암초등학교에서 29일 전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부모 대표 등이 모여 전주금암초 노후 건물 철거 및 재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전주금암초 노후 건물 재활용 방안 모색

전주교육지원청, 도의원·학부모 등과 간담회 개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 관내 전주금암초등학교에서는 29일 전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대표, 학부모기자단,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모여 전주금암초 노후 건물 철거 및 재활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의회 H의원 등으로부터 구도심에 위치한 전주금암초(본관 3동사) 건물에 대해 지역사회와 공동 재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은 내용 년수가 경과되고 정기안전점검결과(D등급)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철거한 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단계적 발달을 위해 자연친화적 놀이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도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미세먼지 위험성이 높으므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실내 놀이공간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항근 교육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를 자주 개최해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해 학교구성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학생들과 지역사회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재협의 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덕진구, 폐지수거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 사랑의울타리봉사단(회장 정은순)은 29일 덕진구 관내 폐지수거 어르신 97명을 모시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이정상 지역본부장) 교통안전 교육으로, 폐지수거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안전 수칙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폐지수거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관련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잦은 야외 활동에 위험성이 높은 폐지수거 어르신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당 20매 상당을 지원하고,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단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군산해경,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구조훈련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들과 민관군 합동구조훈련을 실시했다.

2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 비응항 서쪽 5km 해상에서 적에 의한 경비함정이 폭격을 받는 상황을 가상한 민관군 합동 복합 상황대응 훈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2019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으로 해상경비 중인 경비함정이 적의 공격으로 피폭되면서 화재, 침몰, 퇴선, 인명구조 등 복합 상황을 가상한 실제 기동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군산해경과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소방서, 육군 등 5개 기관과 민간해양구조대에서 경비함정 등 선박 11척, 헬기 1대가 동원됐고 연인원 200여명이 참가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전쟁발발 중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구조 활동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서정원 서장은 "해양경찰은 모든 훈련을 실제상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훈련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국민체험단(16명)이 참여해 을지태극연습을 통해 해양경찰의 전쟁 대비 태세와 대응 역량에 대한 이해와 해양경찰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정훈 기자

귀가 여성 '강도질 시도' 무차별 폭행 30대 영장

귀가 여성을 상대로 가방을 강탈하려고 무차별 폭행까지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경 전주시 완산구 한 노상에서 귀가하던 B모(44)씨를 발로 차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가방을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가방으로 또다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다가오자 A씨는 황급히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밥상 작업장에서 화재 인명 피해는 없어

29일 오전 2시 6분경 남원시 수지면 모 작업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밥상 완제품 1000점과 작업장 1동 473㎡ 중 257㎡ 소실돼 소방서 추산 32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자연발화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낚싯대 건지려다' 저수지서 40대 숨진 채 발견

지난 28일 오후 2시 36분경 전북 전주 중인동 모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A모(46)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낚싯대를 꺼내기 위해 저수지에 들어간 A씨가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과 119에 구조를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수지를 곧바로 수색했지만 물이 탁해 수색 3시간여 만에 A씨를 발견, 시신을 인양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상습 차량털이 20대 검거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44분경 남원시내 노상에 세워진 화물차량에서 3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빈집털이 70대 '덜미'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정읍시내 모 자택에 침입해 석재 절구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